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분께 순종토록 인도할 신실한 통치자를 약속하신다

설교자: 마티아스 샷트 (Matthias Schat) [사무엘상 13:8-14]

8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흠어지는지라 9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11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흠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 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어늘 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오늘 설교본문에서 사울왕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고 순종할지 아니면 자신의 힘을 신뢰하고 순종할지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오늘 설교본문은 불순종은 절박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절박한 시간에서도 순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불순종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분께 순종토록 인도할 신실한 통치자를 약속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말씀의 주제입니다.

1, 이스라엘의 부정한 왕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돌아오기까지 칠 일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했습니다. 하지만 칠일이 지나도 사무엘을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번제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자신의 통제 안에 두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자신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동시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지도자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너무나 상반됩니다. 그 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신실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끔찍한 현실을 직면해야하는 겿세마네 동산에서조차도 그 분은 신실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이 이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은 사무엘에게 적발 당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상 13:13). 이 말은 마음 속 깊은 찔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에게도 역시 깊은 찔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분을 따르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보다 숙련된 스승이어서가 아니라 그 분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계시기 때문입니다.

2, 이스라엘의 신실한 왕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의 불순종엔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자신의 나라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이끌 왕이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새로운 왕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왕자라는 단어는 왕 또는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왕자는 사무엘상 13:14에 말씀하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사무엘상 13:14). 이 새로운 왕은 과연 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을 부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명예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수세기 동안 왕의 통치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참된 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진실한 통치자, 왕자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그 분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왕이십니다. 그 분의 공로로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 분의 아들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내가 나의 삶에 주인이 되려는 우리의 욕망을 깨뜨리시고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도록 변화시켜 가십니다. 누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으니 절박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